



‘전북은행 50년사’ 책자.

〈사진=전북은행 제공〉

‘전북은행 50년사’ 우수 사사대상 (社史)

옛 시대 현장감 생동감있게 표현

커뮤니케이션 사사부분... 사진 등 통해 전달력 높여

연혁 중간마다 인물 인터뷰 등 삽입으로 호평받아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22일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는 ‘2020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사사(社史)부문 우수 사사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사보와 커뮤니케이션 관련 제작물의 발전 및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국사보협회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시상식이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전북은행이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전북은행 50년사’가 사사(社史)부문 우수 사사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12월 발간된 ‘전북은행 50년사’는 1969년 12월 창립한 전북은행의

지난 50년간의 크고 작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연혁, 부서 소개, 사회공헌 활동 등이 수록된 사적이다.

특히 ‘전북은행 50년사’는 기존의 규격화된 형식에서 탈피해 전북은행의 50년 역사를 사진과 그림을 통해 전달력을 높이고, 연혁 중간 인물 인터뷰 등을 삽입해 옛 시대의 현장감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는 호평을 얻었다.

허련 부행장은 “지역민과 함께 동행한 지난 50년의 역사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에 매우 기쁘다”며 “전북은행에 보내주시는 도민들의 사랑과 격려에 보답하고자 앞으로도 지역민과 상생하는 은행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오픈뱅킹 가입하고 경품 받으러 ON’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22일부터 신협 모바일 채널 ‘온뱅크’를 통해 이용자가 보유한 다양한 금융기관 계좌를 조회하고 출금이체까지 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협, 모바일 채널 ‘온뱅크’ 통해 개시 혜택 이벤트 ‘다채’

와 등록해보기는 이벤트 기간 내, 신협 온뱅크 앱 또는 신협 인터넷뱅킹에서 다른 은행 계좌를 1개 이상 등록할 경우, 자동 응모를 통해 ‘아이패드 8세대’, ‘문화상품권’ 등 2,653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오픈뱅킹이란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금융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제3의 서비스사업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고객은 하나의 금융회사 또는 핀테크 앱으로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한눈에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다.

본 서비스 개시에 따라 신협 ‘온뱅크’ 이용자는 보유하고 있는 타 은행 및 상호금융사는 물론, 증권사 펀드계좌까지 일괄 등록 가능하며, 등록된 입출금계좌에서 신협계좌 또는 타금융회사 계좌로 자유롭게 이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등록된 다른 금융회사의 입출금계좌에 있는 잔액을 신협계좌

로 이체하는 ‘잔액모으기’ 서비스와 다른 금융회사의 등락계좌 잔액을 보여주는 ‘나의 자산현황’ 서비스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신협은 22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오픈뱅킹 서비스 개시 기념 ‘오픈뱅킹 가입하고 경품 받으러 ON’ 이벤트도 개최한다. 이벤트는 ‘다른 은행 계좌 등록해보기’와 ‘다른 은행 계좌에서 신협계좌로 잔액 모으기’ 총 2개로 마련됐다. 추첨을 통해 최대 2,985명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벤트 기간 동안 신협 온뱅크 이체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신협 오픈뱅킹으로 다른 은행 계

좌에서 신협계좌로 잔액모으기는 이벤트 기간 내, 신협 온뱅크 앱 또는 신협 인터넷뱅킹에서 다른 은행 계좌잔액을 신협계좌로 1회 이상 잔액 모으기 또는 이체할 경우, 자동 응모를 통해 ‘아이패드 8세대’, ‘문화상품권’ 등 332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정인철 디지털금융본부장은 “오픈뱅킹 이용자들에게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예금리 상향, 상품 라인업 정비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금융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지키며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식품연, 농식품 과학기술대상 대통령·농식품부장관 표창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박동준, 이하 식품연)이 제23회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에서 대통령 표창 1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2점을 수상했다. 이 상은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우수기술개발 및 확산을 통해 농가의 소득증대 및 산업발전에 기여한 연구자 및 산업체를 발굴·포상하기 위한 상이다.

이번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박호영 박사는 2009년부터 식품(연)에 근무하며, 국민건강 증진과 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기능성식품 소재 연구를 수행해왔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학술논문 28건, 지식재산권 56건에 달하는 학술적 연구성과를 달성했으며, 기술이전 5건을 실시하여 산업계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수상에는 박호영 박사의 ▲면역기능성 증진 용도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국산 농산자원 활용 면역력 증진 기능성 소재화 원천기술) ▲전통식품 식용미생물 자원을 활용한 K-유산균 개발(전통식품 유산균 자원의 대사성질 환 개선 기능성식품 소재화 원천기술) ▲장내미생물 및 장 환경 조절이 가능한 장 건강 개선 기능성소재 개발(마이 크로바이옴 기반 장 건강 개선 기능성 식품 소재화 및 플랫폼 개발 기술)에 대한 연구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식품(연)은 이 외에도 가공공정연구단 김범근 단장과 전통식품연구단 홍상필 박사,가 물성제어 기술을 활용한 한국형 고령친화식품의 개발 및 산업화, 제도적 시스템 구축의 공로와 k-food 글로벌 상품경쟁력 강화 및 공익가치에 대한 기여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수여 받았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 M·3급 인사 단행 | 경제지주 장경민·중앙회 이진산 부분부장 등

전북농협이 내년 1월 1일자 부분부장, 시군지부장, 지역본부 단장, 시군지부 농정지원단장, 시군지부 부지부장, 지점장, 출장소장, 팀장 등 M·3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

1월 1일자 M·3급 인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부분부장 (경제지주) ▲장경민 (중앙회) ▲이진산
 ◇시군지부장 ▲전주완주시군 송혁 ▲진안군 정미경 ▲무주군 오영석 ▲장수군 장길환 ▲남원시 권오정 ▲순창군 김현수 ▲부안군 조인갑 ▲김제시 김태곤 ▲군산시 김대호 ▲전북영업부장 양을영.
 ◇지역본부 단장 (중앙회) ▲경영기

허태용 ▲회원지원단 심인섭 (경제지주) ▲양곡재단 고경량 ▲푸드지원센터 광관동 ▲축산지원단 홍창진 (영업본부) ▲경영지원단 조상완 ▲마케팅지원단 이미정.
 ◇시군지부 (농정지원단) ▲김제시 이우성 ▲익산시 이창환 ▲진안군 송경규 ▲임실군 김인순 ▲정읍시 김인범 ▲부안군 이성진 (부지부장) ▲전주완주시군 허현수 ▲무주군 권현미 ▲남원시 김미경 ▲정읍시 이인순 ▲부안군 장은숙 ▲김제시 김용주 ▲익산시 황승연 ▲군산시 이주미.
 ◇지점장 ▲효자동 최은덕 ▲삼현동 황서관 ▲나운동 윤근덕 ▲익산중앙 김경호 ▲영등동 오창모 ▲전주한옥마을 변성섭 ▲전주송천센터 최

은순 ▲태평동 신해순 ▲서신동 최형순 ▲아중 기형욱 ▲중화산동 권미정 ▲금암동 장정미 ▲전주에코시티 원천연 ▲마천 정희 ▲인후동 이찬홍 ▲수송동 김현욱 ▲배산 강성학.
 ◇출장소장 ▲전북영업부본부장 이병희 ▲전주시청 장정선 ▲완주군청 우정민 ▲농촌진흥청 김현욱 ▲무주군청 강두환 ▲순창군청 한상진 ▲정읍시청 고보경 ▲김제시청 조미경 ▲함열 노화성.
 ◇팀장 ▲장수군 채지석 ▲남원시 오창선 ▲정읍시 노운정 ▲군산시 조미현 ▲전북영업부 황오숙 ▲전주완주지역 고보경 ▲효자동 정진철 ▲삼천동 김승희 ▲전북혁신도시 진현욱 ▲수송동 김수연. /김윤상 기자

전북중기청,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현판식

지역기업 ‘비나텍’에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중욱, 이하 전북지방중기청)은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화를 달성하고 미래 신산업을 창출할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에 선정된 우리지역 (전주 팔복동 소재) 업체인 비나텍(주) (대표 성도경)에서 22일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지방중기청장, 김근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장, 허동욱 소상공인지원진흥공단 전주센터장, 김재관 기술보증기금 전주지점장, 양균의 전북테크노파크원장, 박승찬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조지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전문 중소기업 육성프로젝트인 ‘소부장 강소기업 100’을 선정했으며, 전북지역에서는 비나텍(주)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비나텍(주)는 에너지저장장치용원형슈퍼커패시터를 주요제품으로 생산(그 외 연료전지용 지지체, 촉매, MEA 개발생산)하는 업체로 기술유망성, 기업의 성장성 등을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부장 강소기업 100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신속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사업(30개 사업, 최대 182억원)을 우대하여 집중지원하며, 강소기업 전용 R&D를 수행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질 예정이다.

윤중욱 전북지방중기청장은 “비나텍(주)를 필두로 전북지역의 주요산업인 화학·자동차·기계금속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소부장 기업들이 계속해서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우리지역의 강소기업을 선도해 나갈 비나텍(주)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하림 ‘동물복지 IFF 큐브닭가슴살 윈터 에디션’ 출시

종합식품기업 (주)하림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동물복지 IFF 큐브닭가슴살 오리지널-윈터 에디션’을 출시했다. 고급스러운 레드 컬러 배경에 크리스마스를 연상케 하는 트리와 산타클로스를 배치해 연말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패키지가 돋보인다.

‘동물복지 IFF 큐브 닭가슴살 오리지널’은 마켓컬리 인기상품 중 하나로 올 1월 출시 이후, 소비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하림은 여느 때보다 차분하게 보내야 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집안에서 가족끼리 ‘홈 파티’를 하거나 ‘홀로민트’ 분위기를 내는 데

손색없도록 윈터 에디션을 선보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연말임에도 만나지 못하는 소중한 이들에게 선물해도 좋은 제품이다.

‘동물복지 IFF 큐브 닭가슴살 오리지널-윈터 에디션’은 한정판으로 마켓컬리에서 단독 판매한다.

‘동물복지 IFF 큐브 닭가슴살 오리지널’은 닭가슴살을 4~5cm 정도 한입 크기로 먹기 좋게 자르고 후추와 파슬리 등으로 가볍게 밀간한 제품이다 별도의 양념이 필요 없다.

하림 마케팅팀 관계자는 “집에서 가족끼리 혹은 홀로 홈 파티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새로운 패키지의 윈터 에디션을 선보이게 됐다”며, “동물복지 IFF 큐브 닭가슴살을 활용한 멋진 요리로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장영희 기자



“올해 농업현장, 기상재해 등 인한 어려움 컸다”

허태용 농진청장, 전국 농기원장과 영상 업무협의회의 디지털농업 등 내년도 진흥사업 중점 추진사항도 언급

허태용 농촌진흥청장은 22일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전국 농업기술원장과의 영상 업무협의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영농성과 점검과 내년도 핵심추진과제를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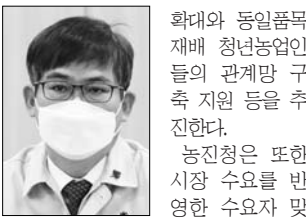
업무협의회의에서 허 청장은 “올해 농업현장은 볼 낱해, 여름 장마·태풍 등 기상재해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과수화상병·가축질병 확산으로 어려움이 컸다”라며 “특히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관련한 차단·방역에 적극적인 협조와 한파·대설 등 겨울철 농업재해 예방,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및 영농부산물 파쇄 현장 실천,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한 통제에 철저한 면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허 청장은 2021년 농촌진흥사업의 중점 추진사항으로 ▲디지털농업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국산품종 개발 및 보급 확대 ▲케이(K)-농업기

술 지원을 언급했다.

농진청은 자료(데이터) 기반의 디지털농업 구현을 위해 지난 11월 12일 ‘디지털농업추진단’을 구성했으며 ▲기반기술 ▲노지농업 ▲시설원예 ▲축산 ▲농업인안전 등 5개 분야로 나눠 디지털농업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노지농업 전 과정 디지털화 및 디지털농업 기술 보급에 박차를 가해 농촌에서 편리하고 쉬운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농업인 정착과 관련하여 농진청은 지난 10일 청년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을 통해 청년의 정착 초기부터 정착 안정단계까지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관리 운영체계(플랫폼)를 연차별로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농업인에게 적합한 사업의 지원 확대와 기술창업 지원, 정착단계별 전문교육과정



확대와 동일품목 재배 청년농업인들의 관계망 구축 지원 등을 추진한다.

농진청은 또한 시장 수요를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품종 개발을 통해 국산품종 활용률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산연간, 소비경향을 반영한 육종 계획(프로그램 구축)을 통해 시장 수요가 높은 품종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 밖에 농진청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22개국에 설치한 코피아(KOPIA, 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센터를 통해 각 나라에 맞춤형 농업기술을 보급한 결과 총 생산유발 효과가 1억 129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 농업발전의 지렛대가 될 케이(K)-농업기술의 지속 지원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은 노조, 성금 500만원 기부

전북은행 노동조합(위원장 최강성)은 22일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성금 500만원을 전주시에 기탁했다.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최강성 위원장은 “쌀쌀해지는 날씨 속에도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면서 “전북은행 노조의 나눔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새만금 농어촌공, 29일부터 새만금 배수갑문 개방 확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단장 이소열)은 새만금호의 수질관리 등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가래, 신사 배수갑문 운영시간을 1일 1회(주)에서 1일 2회(주·야간)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안전한 배수갑문 운영을 위해 지역 어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결정은 환경부 2단계 수질종합평가 결과와 제24차 새만금위원회(11.24)에서 개방방안 확대 의결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개방 확대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새만금호 내 불법조업 행위 관련 대책 회의(12.3)를 비대면으로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농식품부, 해수부, 새만금청, 전북도,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군산 해경서, 부안 해경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등이 참여하여 배수갑문 개방 확대 관련 불법어선 계도·단속 강화 등 안전대책 마련이 논의되었으며, 각 기관별 협업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촌계 등에 계도 및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